

‘괴팍한’ 아이유, 상상이 돼?

“내 안의 여러 모습 입체적으로 표현”
여진구도 기존 ‘성장 캐릭터’ 탈피
홍자매 작가·오충환 PD 호흡 기대

지금까지 대중이 기억해온 연기자 이지은(아이유)과 여진구는 이제, 없다.

13일 첫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tvN 토일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통해 이지은과 여진구가 이제껏 드러내지 않은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 앞에 선다.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강렬한 매력을 예고해 그 변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지은은 전작 ‘나의 아저씨’ 속 캐릭터와 180도 다른 인물을 연기한다. ‘나의 아저씨’에서 처절할 정도로 힘겹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준 그는 ‘호텔 델루나’에서는 온 몸을 화려하게 치장한, 괴팍하고 심술 맞으며 변덕 심한 성격의 인물로 변신한다.

여진구는 ‘왕이 된 남자’와 ‘절대그이’에서 보여주지 못한 남성미와 어리바리한 매력을 오가며 폭 넓은 이미지를 선보인다. 철저한 완벽주의자이지만 알고 보면 2% 부족한 ‘허당 기’로 반전 매력까지 드러낸다. 귀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망가짐을 불사한 모습도 공개한다.

실제로 두 사람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호텔 델루나’ 제작 발표회를 열고 “처음 도전하는 캐릭터”라고 입을 모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기자 이지은(아이유)과 여진구(원쵸)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연 드라마 tvN '호텔 델루나' 제작발표회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이지은은 “‘나의 아저씨’의 저와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두려워할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며 출연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과감하게 변신을 선택한 그는 “가수 아이유에 대해 압전하다, 까불다 등

다양한 반응을 얻었다. 연기로써 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며 “그동안 보여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고 말했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스타일링을 꼼꼼히 챙겼다.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기본으로, 매회 수십 벌의 의상을 소화한다. 이지은은 “제가 패션에 대해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촬영 전 공부를 많이 했다”며 “나름 많이 노력했으니 보는 즐거움도 클 것”이라며 웃었다.

여진구는 ‘호텔 델루나’를 포함해 올해에만 3편의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해 반가움이 덜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우려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전처럼 캐릭터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주변 인물을 이끄는 ‘어른스러운’을 표현한다. 그는 “그동안 주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캐릭터를 주로 맡아 이번에도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다”며 “다행히 이번 캐릭터는 ‘성장 스토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드라마는 ‘귀신전용’ 호텔인 델루나의 사장(이지은)이 지배인(여진구)을 고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판타지 요소가 돋보인다. ‘화유기’ ‘주군의 태양’ ‘최고의 사랑’을 집필한 홍자매(홍정은·홍미란) 작가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닥터스’ 등을 연출한 오충환 PD가 의기투합한다. 필력과 연출력을 인정받은 제작진의 조합도 기대를 모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

11

2019년 7월 9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지하철 몰카’ 경찰에 덜미 김성준 전 앵커 SBS 퇴사



김성준 전 앵커

SBS 간판 앵커 출신인 김성준 논설위원이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SBS는 김 위원이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했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성준 논설위원을 성폭력범죄 처벌특발법(가매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논설위원은 3일 밤 11시55분경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그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김 위원은 입장문을 내어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앞뒤려 사죄드린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991년 SBS 기자로 입사해 메인 뉴스인 ‘SBS 8 뉴스’ 앵커로 낮었다. SB S러브FM(103.5MHz)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하차하고 퇴사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하춘화 부친상…101세 노환으로 별세



하춘화

가수 하춘화가 8일 부친상의 아픔을 당했다. 하춘화의 아버지 하종오 씨가 이날 오전 7시23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하씨는 하춘화가 여섯 살 때인 1961년 가수로 데뷔시켜 ‘영암아리랑’을 히트시킨 숨은 주역이다. 또 올해 10월 문을 여는 전남 영암군의 국내 최초 트로트 가요센터에 딸의 활동상을 담은 자료를 기증하기도 했다. 하춘화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1974년부터 매년 자선공연을 펼쳐왔다. 빈소는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7시다.

‘놀토’ 헤리, 친동생 쇼핑물 홍보 사과



헤리

친동생의 쇼핑물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공연히 홍보한 그룹 걸스데이 출신 헤리가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헤리는 6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물의 이름을 노출해 논란을 모았다.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헤리는 8일 소속사를 통해 “불편을 느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제작진도 이날 “재방송 및 VO D 서비스를 수정하고 앞으로 제작에 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현석 요청으로 술자리에 업소 여성 동원”

성 접대 의혹 관련 ‘정마담’ 증언 공개
YG측 “일방적 주장”…경찰 수사 주목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0)의

해의 투자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일명 ‘정마담’이 “당시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한 건 양현석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양현석의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MBC ‘스트레이트’는 8일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진 일명 ‘정마담’의 증언을 방송했다. ‘정마담’은 양현석이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고급음식점과 클럽에서 말레이시아 재력가 등 해외 투자자들을 접대할 당시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하지만 양현석은 ‘정마담이 왜 여성들을 동원했는지 모른다’, ‘정마담이 왜 술자리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등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정마담’은 “내가 그런 거물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지 않나. 진짜 돌아버리는 거다 내가”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술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이 나타난 건 모두 양현석의 요청 때문이었다”면서 “해외 투자자의 이른바 ‘유럽 원정’에도 이들을 동원한 것도 양현석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손님 오니까 ‘뭉어줄게’라고 해서 (양현석의)요청을 받고 애들(유흥업소 여성들)을 데리고 나갔다”면서 “투자자 쪽에서 (돈을)줬다더라. 어떻게 돈을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유료를 다 발로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현석과 “돈 관계를 (유평) 가기 전 직접 상의했다”면서 “내가 1억을 왜 가져갔는지 내용은 그거 잘 알고 있다. 자기가 시켰으니까”라고 밝혔다.

이 같은 증언이 나오면서 향후 경찰이 관련 의혹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정마담’과 유흥업소 관계자 10여

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실제 성매매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8일 “여러 관련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제기된 모든 의혹은 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거짓 주장의 진실은 향후 밝혀질 것”이라며 언론 대응과 입장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거짓 해명 의혹까지…‘정글의 법칙’ 비난 폭주

태국 대왕조개 불법 채취 일파만파
현지 언론 ‘사냥 안 한다’ 공문 공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태국 촬영 도중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현지 고발을 당한 제작진이 이번엔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연기자 이열음이 태국 꼬막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왕조개가 평균 수명 100년 이상인 멸종위기종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4일 현지 경찰에 제작진과 이열음을 고발했다.

이어 7일 타이 피비에스 뉴스 등 태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투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연출자 조용재 PD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

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SBS가 5일 “현지 규정을 사전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입장과 달리 제작진이 촬영 전 현지 규정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SBS는 8일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일 “이열음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대왕조개 채취시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현지 양형 기준)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글마저 올라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정재영·정유미 “검법남녀 시즌3도 함께한다”

연기자 정재영과 정유미가 MBC드라마 ‘검법남녀’의 시즌제 안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시즌1에 이어 6월3일부터 방송 중인 ‘검법남녀’ 시즌2의 주연으로 나선 두 사람은 “장르물”로서 드라마의 지속성에 주목하며 시즌3 제작을 약속했다. 실제로 ‘검법남녀 2’는 법의학자 백범(정재영)과 검사 은솔(정유미)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그리며 직장 내 성희롱 등 최근 사회적 문제를 과감하게 녹여내 호평 받고 있다. 덕분에 2일 시청률 8.6%(닐스코리아)를 기록하는 등 월화드라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법남녀 2’는 MBC 최초 시즌제 드라마로 주목 받았다. 8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 MBC센터에서 만난 정재영과 정유미는 “시즌2까지 온 것은 모두 시청자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시청자 사이에서 ‘미드’(미국드라마) 형식의 장르물이란 말을 들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재영은 “시즌1부터 단발성으로는 아

까운 포맷으로 여겼다”며 “새 사건과 인물의 등장, 에피소드 배열의 변주 등이 시즌제 드라마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드라마의 힘이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전개의 매력”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유미도 “시즌을 거듭할수록 사건 해결에 집중하는 장르물 성향이 더욱 짙어져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고 시청자 호평의 배경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은솔 검사의 성장과 같은 캐릭터의 변화에 대한 여자가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두 연기는 시즌3 합류도 주저하지 않았다. 정유미는 “정재영이 다음 시즌을 위해 몸을 만들겠다고 버리고 있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연출자 노도철 PD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연기자를 캐스팅하며 시즌제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서 “마지막 회에 시즌3의 도입부를 담을 것”이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